

# 제작기법에 따른 종이가구 연구

A Study in Paper Furniture depending on Production Method

장은진

# 제작기법에 따른 종이가구 연구\*<sup>1</sup>

장은진\*<sup>2</sup>

## A study in paper furniture depending on production method\*<sup>1</sup>

Eun-Jin Jang\*<sup>2</sup>

### ABSTRACT

Since early times, paper has been the leading means of expression in human civiliza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languages, people have used paper as their major intermediation measures to flourish the culture. At this point of time when studies in latest design are various and abundant, these fixed ideas on paper should be eliminated first for inventive thinking and freedom of expression. Because breaking the established notion helps to diversify the function of paper. We can see furniture made of paper come in useful to our ancestors in their daily life with the development of "Hanji." Each piece of paper furniture had its own function and beauty depending on processing method. Not only has been used for materials of basic modeling in the process of modern furniture designing, paper has also been used for the main material for the purpose of a new trial. If we try to find out the ways to take diverse characteristics of paper and develop them, while overcoming the defects of the material, paper has great potentiality for many kinds of use in furniture industry.

**Key words :** *paper furniture, Technical Paper Art, Hanji, Corrugated Cardboard, Honeycomb Board*

---

\* 1. 논문접수 : 2005.12.5.

\* 2.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가구디자인학과 The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 1. 서 론

## 1-1 연구목적

종이는 현대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기원전 3세기경 중국에서 처음 종이 발명된 이후, 종이는 인류의 사회적·산업적·문화적 토양을 담은 그릇이 되었고, 오랜 세월동안 문화의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문화 수준이 발달할수록 그 비중이 커지면서, 종이는 더욱 다양한 목적과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다.

종이는 어떤 것을 전달해 주는 피동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은 가장 타당한 용도이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다양하고 새로운 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때 이와 같은 보편적 인식은 종이의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적인 발상을 위하여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하는 고정관념이다.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단계에 이어 최초의 입체 모델을 만들 때 구입과 가공이 쉬운 종이는 유용하게 쓰여 진다. 가구디자인의 과정에서도 기초 모델링의 재료로 널리 쓰여 질 뿐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시도를 목적으로 할 때 중요한 소재로써 이용되고 있다. 이미 종이를 이용한 가구와 소품은 한지의 발달과 함께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는데, 그 가공법에 따라 다양한 기능성과 조형성을 지니고 있었다.

국내 종이가구 시장에서 주로 포장재로 이용되는 판지와 전통 공예에서 사용되는 한지를 제외하면 종이 가구가 가구 재료로 실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영역이 크지 않다. 무엇보다 나무와 철, 유리 등에 비하여 내구성과 기능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료가 지닌 다양한 특성들을 찾아내어 발전시키고, 단점을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종이는 가구산업에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 1-2 연구범위 및 방법

조선시대의 공예품에서부터 현대의 국내외 상업가구와 기타 실험성과 조형성이 강한 가구까지 다양한 디자인 사례를 각종 관련 서적과 논문, 인터넷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연구의 범위를 전통공예품을 포함하여 잡은 것은 현대 종이가구 제작기법과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조, 형태, 마감방법 등을 중심으로 제작기법을 분류하여 종이 가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 2. 전통 지공예의 특징

## 2-1 지공예의 발달

지공예품은 다른 공예품과는 달리 연대가 오래됨에 따라 보존이 어려워 현존하는 것들은 거의 조선말기의 것이다. 지공예품이 서민의 감각으로 조선조에 보편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교사상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백제, 신라, 고려가 불교에 의해 현세의 생활을 희생하여 내세의 행복을 구하던 것에 반해, 유교적 삶은 현세를 긍정하는 사상을 배경으로 생활 속에서 서민들이 자신의 미적 감각을 발휘한 생활 용품들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적 배경이었다.

지공예의 발달은 선조들의 발달된 제지기술과도 연결된다. 한국 전통 예술에서의 한지(韓紙)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미적 특성 즉 자연미를 불어넣은 주요한 재료로 활용되어 왔으며,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미적 특성은 각종 생활 도구, 공예품, 그림 등에 녹아있다.<sup>1)</sup> 특히 조직이 질겨서 일반인들은 옷을 만들어 입고, 병사들은 갑옷으로 만들었으며, 주택에서는 벽지, 장판지, 창호지 등 마감재로 사용되었다.<sup>2)</sup>

1) 임덕현, 한지를 이용한 전통문양의 현대적 표현 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8-9  
2) 김칭, 종이·판지 이야기, (주)포장산업, 1999, p.125-127

한지는 뛰어난 가소성을 지닌 물질 재료이며, 평면을 위시하여 부조표현과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활 깊숙이 파고든 한지는 소품, 가구류에 까지 이르러 다양한 공예기법을 발달 시켰고, 이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2-2 지공예의 종류

지공예는 그 종류가 다양하여 만드는 방법, 재료 사용 방법, 용도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Table 1>은 지공예의 대표적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첫 번째로 소개될 공예기법은 지승(紙繩)공예기법이다. 지승의 어원을 살펴보면 종이라는 뜻의 지(紙)에 끈다는 뜻의 승(繩)으로 지노, 종이노끈과 같은 말로 사용된다. 특별한 도구 없이 한지를 꼬아서 울과 울을 손끝으로 엮는 방법으로 단순한 짜임새에 복잡, 화려한 문양을 배합시켜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끈종이는 아교풀로 형태를 고정하고, 습기와 해충에 약한 특성을 극복하고자 옷칠로 마무리하였다. 사진에서 보여주는 찻상은 기존의 목재를 이용하여 만든 것에 비해 견고성과 형태적 완성도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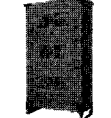


전지(剪紙)공예는 싸리, 대, 버드나무나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여 장, 고리 상자를 만들어 그 위에 종이를 발라 마감을 하거나, 두꺼운 종이를 문양을 만들어 붙이고 종이를 발라서 문양의 부분이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호(紙糊)공예는 종이를 잘게 찢어서 풀과 배합하여 함지박, 향아리, 물동이형으로 된 기물에 얹어놓고 일정한 두께로 발라 말려서 제작한다. 지호공예품은 가볍고 깨지지 않으며 폐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여성적이고 순박한 맛이 담담한 색조와 질감으로 나타난다.<sup>3)</sup>

그밖에 지장, 색지, 후지공예 역시 종이를

발라 만드는 형식이지만, 약간의 차이를 두고 발전되었다.

한지의 특징 중 하나는 염색기법의 발달로 다양한 색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종이에 물을 들여 색지를 만든 최초의 기술자란 주장은 세계적 종이 역사 학자인 미국의 다드 헌터(Dard Hunter)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높은 수준의 지공예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사 진	설 명
지승공예		종이를 꼬고 그것을 엮어서 만드는 방법 (찻상)
지호공예		종이를 잘게 찢어 물에 불린 뒤 틀에 부어 넣거나 덧붙여 만드는 방법 (표주박)
전지공예		종이를 오려 붙여 만드는 방법 (지장)
색지공예		다양한 색지로 옷을 입힌 다음 여러 가지 무늬를 오려 붙이는 방법 (색실함)
후지공예		종이를 여러 겹 붙여 두껍게 만드는 방법 (함)
지장공예		나무로 뼈대를 만들어 안팎으로 종이를 겹 발라 만드는 방법 (안경집)

<Table 1> Kinds of Technical Paper Art

## 3. 종이의 특징

### 3-1 종이의 특징

종이란 “섬유 물질을 개개의 섬유로 분리시킨 다음, 그것을 물 속에 담그고 다시 모아 습지(Mat)를 만든 후에 이를 건조시켜 만드는 섬유 물질의 얇은 층(Sheet)”이라 정의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평면의 상태로 제조되며, 섬유조직을 분리하여 조직화 하는 방식과 재료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종이 만들어진다.

3) 김성희, 지공예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p.27-31

종이는 가소성과 가변성이 뛰어나 자유롭게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의도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어떠한 형태나 변화도 받아들인다. 2차원 평면형태의 종이를 찢고, 자르고, 역거나 접고, 구겨서 손과 간단한 도구로 다양한 입체 조형을 시도하고 응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3-2 종이가구의 장점

1) 종이는 친환경 소재로 재생 가공이 가능하다. 이 구상은 산림 벌채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이후 산업적 현실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sup>4)</sup> 재생 펄프의 생산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수에 관한 기술력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이는 거대한 가구재료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수 있는 근거가 된다.

2) 종이와 기타 원료의 혼합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실현시켜줄 방향을 제시한다. 금속, 섬유, 나무 등 종이와의 합성을 통해 종이와 가진 단점을 극복하면, 종이가구의 재료로 다양하게 이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3) 우리의 지공예 전통은 선조들의 종이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자연과 어울려 사는 삶을 중시했던 선조들의 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소재인 종이는 다방면에 유용하게 사용되었고, 이는 현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친화적 디자인에 밑거름이 된다.

### 3-3 종이가구의 단점

1) 종이가 형태적 유연성을 가진 반면 수분, 열, 산화 등 외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현대 제지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이 극복 되었으나, 가구에 사용될 수 있는 종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2) 종이만으로 독립적인 가구를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연결 하드웨어나 기둥의

구조를 함께 연구해야 한다.

3) 소비자들의 의식 속에 종이가구는 아직 일회용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종이 그대로의 형태를 고수하기 보다는 시각적·촉각적으로 새로움을 찾아야 한다.

## 4. 가공법에 따른 종이가구 분류

국내 종이가구 산업의 경우 대부분이 판지(Paper Board)를 이용한 제품에 치우쳐 있는데, 그 이유는 가공법이 단순하고 운반과 상품 진열에 적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Fig 1>처럼 소비자가 직접 최종 조립을 하는 시스템은 국내외 모두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국외의 경우 국내와 달리 저가형 종이가구와 함께 새로운 가공방식을 이용한 고급 종이가구 또한 생산되고 있다. 이는 가구업체 스스로 수요층을 형성하며 종이가구 가공방식의 개발과 심미성을 깊이 고려한 선진국 수준의 산업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이의 종류별로 목적한 기능에 가장 적합한 기법을 알아보고 효과적인 종이가구 디자인의 활용방안을 생각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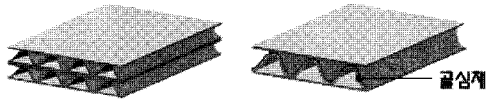
### 4-1 너다운(Knocked-Down)방식의 가구

최근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재활용과 재사용, 적재와 이동성, 웰빙 라이프(Well-bing Life) 등의 이유로 분해·조립식 가구, 단위 가구, 부분조립식 가구, 조합 가구, DIY 가구, 붙박이 가구 등 새로운 형식의 가구가 출현하고 있다.<sup>5)</sup>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생활의 편리를 위한 가구의 스타일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일반적 가구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반면 공간의 활용도가 낮으며 이동이 잦은 현대 생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종이를 이용하여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가구 시스템이 개발되고 사용된 목적이다. 접기 기법을 이용한 가

4) 피에르마르크 드 비아지(Pierre-Marc de Biasi), 종이, 시공사, 2000, p.45-46

5) 이정수, 너다운(Knocked-Down) 목재가구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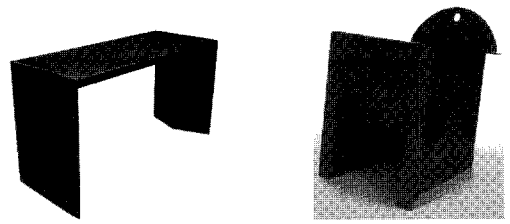
구는 종이 본래의 성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이의 두께에 따라서 개성 있는 디자인이 가능하다. 카드보드(Cardboard)나 골판지(Corrugated Cardboard)처럼 두께가 있는 종이는 각을 세워 접고, 홈을 파서 끼우는 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포장재 산업에서 골판지는 높은 활용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개발되어 있다. 일상생활에서 골판지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골판지 상자가 같은 크기의 나무상자에 비하여 목재의 사용량이 1/10 이하이므로, 목재 자원의 이용 합리화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자원 고갈 문제와 연관되어 종이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골판지는 강도별로 편면, 양면, 이중양면, 삼중, 강심 골판지 등으로 나뉜다. 이 중에 가구를 제작하는 용도로는 강심 골판지가 적절하다.



<Fig 1> Double wall Corrugated Cardboard / Dual-Medium Corrugated Board

강심 골판지는 골심지가 판지 사이에 첨가되면서 이중양면 골판지와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적은 부피감으로 다양한 디자인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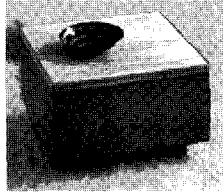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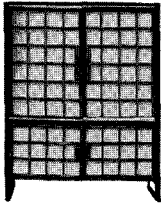
이미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너다운 형식의 종이가구가 판매되어 왔다. <Fig 1>은 올리비에 레블르와(Olivier lablois)의 테이블과 안락의자이다. 안락의자는 성인 체중에도 부서지지 않으며, 인쇄된 광고 메시지나 사진·그림 등을 넣어 가정용, 공공용으로 모두 활용 가능하다. 저렴한 값으로 발송할 수 있는 이 의자는 평평한 상태로 판매된다. 마찬가지로 테이블의 경우도 최종 사용자에 의해 조립되어 사용된다.



<Fig 2> Olivier lablois, 1995

#### 4-2 골재에 종이를 붙이는 기법의 가구

전통공예의 목골지장(木骨紙匠)기법을 이용한 가구들로 현재는 제품적 성향을 갖기 보다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기법을 이용한 전통가구와 현대가구를 살펴보자. 보존되는 전통가구로 조선조의 지장가구(紙槩家具)가 있다. 지장가구는 '종이를 이용하여 꾸민 가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목재로 짜서 만든 백골이나 후판지로 제작한 기형의 표면에 한지를 발라 장식한 가구를 말한다. 이 기법은 장, 농, 함, 상자 등 다양한 전통 수납가구에 이용되었다. 나전장, 화각장과 같은 치장가구보다는 손쉽고 경제적으로 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중적 취향이 잘 드러나는 가구이다. <Fig 3>의 왼쪽 사진은 전통 주택의 문살과 유사한 형태로 과거 종이 가구와 주택을 제작함에 있어 연관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 제품은 목골지장기법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디자인한 좌식테이블이다. 목골에 종이를 바르고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안쪽의 색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켰다. 이밖에 종이를 패턴으로 올려서 판위에 발라 입체감 있는 무늬를 표현하는 방법도 있다. 이 기법은 종이위에 투명 도장으로 마무리하여 실생활에서 기존 가구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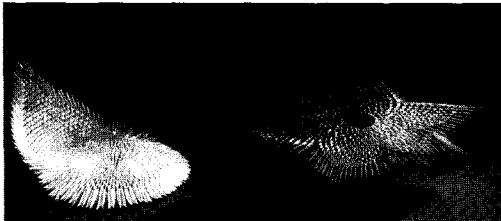


<Fig 3> Ji-Jang Furniture / Kim Jung Sik, Table

#### 4-3 종이를 겹치는 방식의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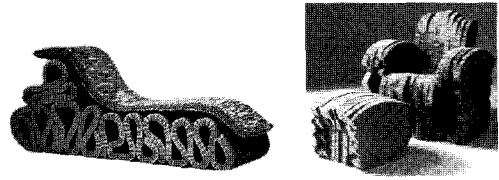
종이를 겹치는 방식의 가구는 풍부한 조형성을 얻는데 적합하다. 판재의 형식에서 벗어나 3차원의 다양한 곡면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얇은 종이 자체만으로 가구를 제작하는 것은 강도의 문제로 기능성이 없다. 그러나 얇은 종이를 접어 만든 작은 조각들을 규칙·불규칙적으로 겹치면 인체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사용 가능한 가구가 되기도 한다. <Fig 4>는 기본 종이접기 방식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유닛이 겹쳐지면서 유기체적 형태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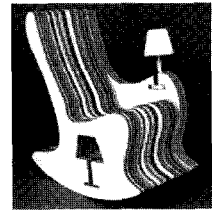
<Fig 4> Gang, Myoung Sun, "Paper+Origami=Furniture", 2001

<Fig 5>는 건축가 프랑크게리(Frank O. Gehry)에 의해 디자인된 가구시리즈이다. 각기 재단된 골판지를 겹겹이 붙여 종이의 단면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표현된다. 이 의자는 저가의 대량생산을 위해 실험적으로 계획되어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의 가구는 실용적인 측면보다는 종이가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Art Furniture"로써 장식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Fig 5> Frank O. Gehry, "Little Beaver" 1980, 'bubbles' 1979

<Fig 6> 역시 붙이기 기법을 이용한 수납과 휴식을 위한 가구이다. 종이의 다양한 색상을 이용하여 단면이 그래픽 적으로 표현되었다.



<Fig 6> Kim Yeon Jong, "I don't like to live a box", 2000 / Lim Tea Hoon, "Rocking Paper", 2003

<Fig 7>는 골판지로 수납장과 테이블 등 사무공간을 디자인한 사례이다. 재료가 지닌 영역을 넘어선 좋은 사례이다. 앞으로의 디자인은 이렇게 재료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물성의 극대화를 통해 사용자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감성 디자인의 개념에 주목해야한다.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가구에 사용자의 감성 혹은 디자이너의 감성이 표현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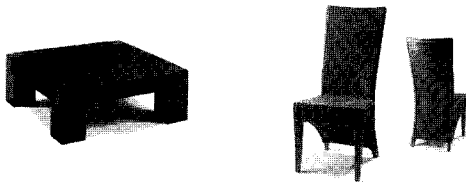


<Fig 7> interior design of using the Corrugated Board

#### 4-4 꼬아서 엮는 기법을 이용한 가구

전통 지승공예기법이 이와 동일하며, 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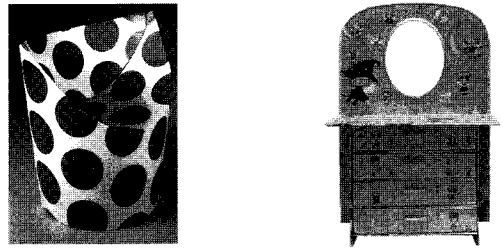
처럼 엮기 때문에, 일반 판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탄력성이 좋고, 내구성이 높다. <Fig 8>는 마샬 번즈 로이드(Marshall Burns Lloyd)의 'Loom Chair'와 테이블이다. 'Loom'은 '엮어 짠 의자'라는 뜻으로 중심에 철사를 넣고 그 위에 종이를 꼬아 아교로 집합한다. 우리의 지승공예와 유사하며, 통기성이 좋다. 이렇게 만든 룸 의자는 등나무 의자보다 따뜻하고 매끈하며, 견고성이 우수하고,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다. 일상생활에서 무리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종이의 단점을 부가재료로 보완하는 사례라 볼 수 있다.



<Fig 8> Marshall Burns Lloyd

#### 4-5 종이에 코팅(Coating)처리를 한 가구

종이의 코팅 목적은 펄프 섬유만으로는 충분한 강도의 표면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관의 재질, 인쇄 작업성, 가공적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sup>6)</sup> 유연성을 가진 두께의 종이는 접지 않고 구부려 한층 입체감을 얻을 수 있는데, 코팅으로 종이에 내구성을 더하면 좀 더 자유스러운 곡선을 만들 수 있다. <Fig 9>의 왼쪽 피터 머독 (Peter Murdoch)의 "Spotty"는 폴리에틸렌을 종이의 겉면에 코팅하여, 종이가 수분에 약한 점을 보완하고, 프린팅을 통하여 'Pop' 디자인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오른쪽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립식 화장대이다. 표면을 밝은 색채와 캐릭터로 꾸미고, 아동들이 쉽게 조립,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용으로만 국한되어 시장의 확대에 한계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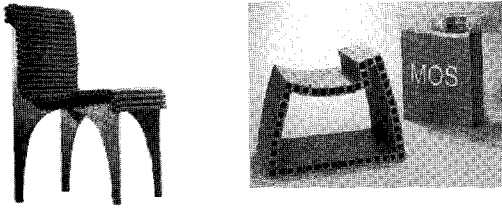
<Fig 9> Peter Murdoch, "Spotty", 1963 / Sung Il Sack Jang, mirror stand

#### 4-6 블록(Block)종이를 이용한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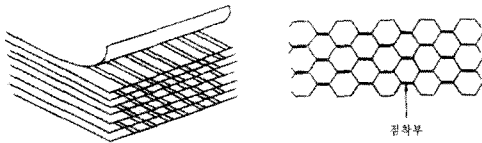
종이블록은 실생활에서 다양한 부분에 사용되는데, 재료 자체로 기능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다른 주재료를 보호하거나 형태를 유지시키는 역할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주재료가 사용되고 나면 종이를 만든 부분은 그대로 폐기된다. 완결된 제품으로의 개발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디자이너들의 노력으로 특성 있는 활용방안을 찾기 시작하였다. <Fig 10>의 왼쪽 가구는 시게루 반(Shigeru Ban)의 "paper tube chair"이다. 시게루 반은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가로 종이라는 소재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 종이튜브(Paper Tube), 허니콤보드(Honeycomb Board), 종이막(Paper Membrane) 등을 이용하여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도 했다 <Fig 11>에서 보여주는 허니콤보드는 부피와 수직압축강도에 비해 대단히 경량인 소재이기 때문에 건축, 가구용 소재로서 칸막이, 문짝의 중심재료로 이용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장난감 블록을 쌓아 건물을 짓듯이 소비자가 만드는 가구 시스템이다. 두 종류의 종이 파이프가 특수한 구조로 연결되면서 접착제가 필요 없이 형태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때문에 종이 파이프는 다른 용도의 재활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6) 앞의 책, p166-168





<Fig 10> “paper tube chair” Shigeru Ban, 1998 / ‘ka MIKAN kagu’, 2001



<Fig 11> Honeycomb Board Production Process

## 5. 결 론

O2의 설립자이자 디자이너인 티레이 카자지앙(Thierry Kazazian)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전의 디자인이 형태의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면 미래의 디자인은 이들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7)</sup> 앞으로의 가구디자인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가공기술력, 다양한 소재의 출현과 가구와 사용자 간의 관계 변화, 사용자의 감성을 고려한 디자인 등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과거 가격경쟁에 치중하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 아직은 산업의 작은 부분에 머무르고 있는 종이가구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종이가구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박스(Box)형태의 저가형 수납가구시장을 낙관적으로 보지 말고, 기존의 가구와 종이가구의 차별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확보에 노력해야한다. 본문에서 다루었던 기법들을 참고로 시장 확보의 가능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던 기존의 가구보다 넉다운 방식의 종이가구는 운송과 저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종이에 코팅을 하면 그래픽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첨가할 수 있어 광고홍보의 효과를 얻는다. 소비자는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사용하면서 제품과 의사소통하는 기회를 얻는다. 두 번째로 골재에 종이를 바르는 기법은 전통공예기법을 실생활에 쉽게 응용시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종이를 판재가 아닌 끈이나 블록 등의 다른 형태로 변형시켜 새로운 형식의 가구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종이의 가공 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획기적인 가공법의 개발로 기존 가구와의 차별되는 기능성과 조형성을 시도해야한다.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여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앞으로의 디자인에서 그 활용영역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종이가구제품을 만들기 위해 산업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6. 참고문헌

1. 임덕현, 한지를 이용한 전통문양의 현대적 표현연구-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2. 김정수, 넉다운(Knocked-Down)목재가구 디자인연구, 2004
3. 한정엽, 조선시대 지장(지장)가구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4. 김성희, 지공예 조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5. 이승철, 우리한지, 현암사, 2002
6. 김청, 종이·판지 이야기, (주)포장산업, 1999
7. 월간디자인, 2003. 4
8. Mel Byars, 50CHAIRS, MGH Design Books, 1999
9. Mel Byars, 50TABLES, MGH Design Books, 1999
10. Pierre-Marc de Biasi, 종이, 시공사, 2000
11. 1000chairs, taschen, 1997
12. www.designboom.com

7) 월간디자인 2003, 4, p.119